

事務局

연결과 소통, 지구촌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종합정보지

ISSN 2233-8632

PEACE ROAD

magazine

겨울

Vol. 23 | 2014

Cover Story

피스로드와 유라시아 평화인프라 구상

피스로드가 동북아 평화의 원동력이다 | 정태익

내생각에는 | 한종만

한국, 南·北·러 3각협력 적극 참여를

인물탐방 | 박경부

“한일터널 건설 10년 내 본격 논의될 것”

www.peaceroad.com



- 32 **내 생각에는** | 한국, 南·北·러 삼각협력 적극 참여를 | 한중만
- 34 **지상중계 I** | 젊은이여! 통일이후를 준비하자 | 안찬일
- 39 **지상중계 II** | 중국, G1되려면 북한 두둔 더는 안돼 | 전근용
- 44 **특별기고** | 고려인 이주 150주년... 평화통일의 길 활짝 | 정태익
- 48 **NEWS & ISSUE** |
 - 한·중 간 열차페리 연결하는 '항실로드' 7년만에 현실화
 - 코레일 최연혜 사장 "대륙철도 시대 행기겠다"
 -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대 석좌교수에
- 50 **발행인의 편지** | "피스로드 는 지구촌 한가족을 잇는 길이다" | 김병수

커버스토리 피스로드와 유라시아 평화인프라 구상

- 06 피스로드가 동북아 평화의 원동력이다 | 정태익
- 11 시진핑 실크로드 프로젝트 한국도 관심을 | 홍인표
- 16 한일터널은 갈등극복·화해협력의 상징 | 강대민
- 21 한일터널 꿈에서 실현으로 나아가자 | 나가노 신이치로
- 26 **인물탐방** | 한일터널 건설 전도사 박경부
"한일터널 건설 10년 내 본격 논의될 것"



소통과 연결을 통한 지구촌 한 가족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유라시아 중심국가인 남북한과 일본은 이념과 역사 문제에 부딪쳐 역내 평화인프라 구축에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백두산 천지가 얼어 눈이 쌓인 가운데, 중국을 통해 올라온 남한 관광객들이 통일을 기약하며 걷고 있는 모습.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처	세계평화터널재단
발행인	김병수		150-7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921호
편집장	정성수	등록	2010년 9월 3일
사진	이정환	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1
디자인	정인선	전화	02)3471-7696
		팩스	02)3471-7690

連結と疎通、平和の道を開く総合情報誌

PEACE ROAD

Magazine

冬

通巻 23 号 2014

カバーストーリ

ピースロードとユーラシア平和インフラ構想

ピースロードが東北アジア平和の原動力だ/チョン・テイ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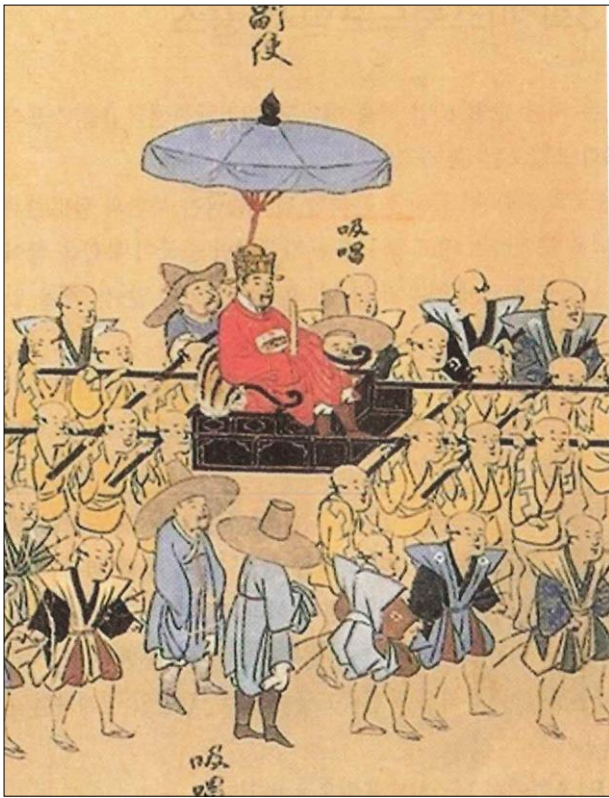
私の考えは/ハン・チョンマン

韓国、南・北・ロシア 3 角協力を積極参加を

人物探訪/パーク・キョンブ

“韓日トンネル建設 10 年以内に本格的に議論さ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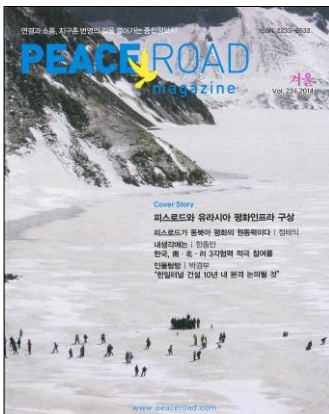
CONTENTS 2014 冬 通巻23号



- 32 私の考えは / 韓国、南・北・ロシア三角協力を積極関与を / ハン・ジョンマン
- 34 紙上中継Ⅰ / 若者よ!統一後を準備しよう / アン・チャンイル
- 39 紙上中継Ⅱ / 中国はG1になるには北朝鮮の肩を持つてはならない / チョン・グニョン
- 44 特別寄稿 / 高麗人移住 150 周年...平和統一の道開放 / チョン・テイク
- 48 NEWS & ISSUE / 韓中の間を列車フェリーで結ぶ‘黄海シクロロード’プロジェクト 7年で現実にコレイルのチェ・ヨソ社長“大陸鉄道時代”に備えオ・ゴドソ前海洋水産部長官が釜山大学の碩座教授に
- 50 発行人の手紙 / “ヒースロード”は地球村一家族を結ぶ道” / キム・ビョンス

加パーストリー ヒースロードとユーラシア平和インフラ構想

- 06 ヒースロードは東北アジア平和の原動力だ / チョン・テイク
- 11 習近平のシクロロードプロジェクトに韓国も関心を / ホン・インピョ
- 16 韓日トンネルは葛藤の克服・和解協力の象徴 / カン・テミン
- 21 韓日トンネルを夢から現実としよう / 永野慎一郎
- 26 人物探訪 / 韓日トンネル建設の伝道師 ハク・キョンフ “韓日トンネル建設10年以内に本格的議論”



疎通と連結による地球村一家族時代が目の前の現実として迫り来ているが、ユーラシアの中心国家である南北韓と日本は理念と歴史問題に遮られ、域内の平和インフラ構築に大きく踏み出すことができないでいる。写真は白頭山の天池が凍り雪が積もるなか、中国経由で登ってきた韓国の観光客が統一を祈願して歩く姿。

発行日 2015年3月16日
 発行人 キム・ビョンス
 編集長 チョン・ソンス
 写真 イ・ジャンファン
 デザイン チャン・インソン

発行所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
 150-714 ソウル市永登浦区国際金融路8通11
 テヨンビルディング 921号
 登録 2010年9月3日
 登録番号 永登浦 마 000111
 電話 02-3471-7696 FAX 02-3471-7690